

佛教文化学会第23回学術大会

(第2回 大正大学—金剛大学校 国際学術研究発表会)

発表会テーマ『現代社会における仏教の諸問題』

地域変動と仏教寺院

—特に「過疎化」による寺院への影響—

名 和 清 隆

(淑徳短期大学兼任講師／浄土宗総合研究所研究員)

日本では、特に高度経済成長期（1950年代半ば～1970年代半ば）に伴う都市部への人口移動によって、地方部に「過疎化」が生じた。過疎地域の特徴としては、地域の人口が減少するだけでなく、少子高齢化がすすみ、地域の産業が衰退し、またそれら諸条件の結果として地域で暮らす人の生活水準の維持が困難になってしまう状態に伴うことも多い。

日本の仏教寺院の多くは、檀家制度に基づき、主に地域に住む檀家の人々を対象としての布教活動、葬儀・法事などの儀礼執行などを行い、その一方、寺は檀家からの経済的支援を受けてきた。このように、寺院は「地域に住む檀家」を主な対象としてきたため、過疎化によって地域の人口が減少することは、仏教寺院にとって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

発表者が所属している「浄土宗総合研究所」の「過疎地域における寺院に関する研究班」では、過疎地域にある浄土宗寺院の現状、また寺院が取り組んでいる活動を全国的に把握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①過疎地域にある浄土宗寺院への聞き取り調査¹（2008年から継続中） ②過疎地域の浄土宗寺院へのアンケート調査²（2012年6月実施）を行っている。本発表では、これまでの調査の結果をもとに、過疎地域の浄土宗寺院が抱える問題について報告をした。

大きく分けて、経済的問題、寺院の今後に関する問題を取りあげた。経済的問題に関しては、寺院の経済状態の悪化の要因として考えられる檀家数減少の問題、役僧機会の減少の問題、兼職の問題、檀家の居住地の拡散化の問題について述べた。寺院の今後に関する問題では、寺院の後継者に

ついでの問題、また今後寺院を「正住職寺院として維持していきたいか」について取り上げた。

むしろこれらの問題は、過疎化による影響だけではなく、様々な要因が影響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また、各地域・各寺院によって抱えている問題や深刻具合は異なっている。しかし「次世代において、健全な寺院運営が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不安は、どの住職もおおむね共通して抱えている。確かに10-20年後には「寺院を取り巻く状況の変化」はより一層顕在化すると予想できる。なぜなら、高度成長期に移動（＝居住地が寺院のある場所から離れた）をした主な世代である「団塊の世代」（1947-49生）の人々が死を迎え、その次の世代が「菩提寺との付き合い」をどのようにするか迫られる状況が増えるからである。つまり「檀信徒関係を解消する」人々が急増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のである。今後の日本は人口の減少、少子高齢化が一層進行し、2060年には人口8674万人、高齢化率39.9%と予測されている（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このことから、現在、過疎地域の寺院に生じている問題、生じつつある問題が、将来的には日本全国の寺院に生じる可能性もあるのである。

¹ 和歌山県有田・日高・野上地域8ヶ寺（2008年11月）、千葉県南房総地域8ヶ寺（2009年10月）、山梨県八代・都留地域6ヶ寺（2010年3月）、新潟県佐渡市5ヶ寺（2010年7月）、島根県石見地域12ヶ寺（2010年12月、2011年6月）、高知県室戸・土佐清水地域4ヶ寺（2011年12月）、熊本県天草・水俣地域11ヶ寺（2013年3月）、北海道松前・江差・稚内・札文・留萌地域13ヶ寺（2013年7月）に聞き取り調査を実施した。なお、調査報告は、浄土宗総合研究所『教化研究』20-23に掲載。

² 過疎地域（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2条1、33条1、33条の「旧・指定地域」）にある浄土宗寺院（代務住職寺院は除く）に対して実施（2012年6月）。「正住寺院」版（710ヶ寺対象。回収627、回収率88.3%）、「兼務寺院」版（277ヶ寺対象。回収236、回収率85.1%）それぞれを実施。配布は該当寺院に直接郵送、回収は該当寺院が所属する組→教区→浄土宗総務局を経て回収。

지역변동과 불교사원 —특히“과소화”에 의한 사원에의 영향—

나와 기요타카

(숙덕단기대학 겸임강사/정토종 종합 연구소 연구원)

일본에서는 특히 고도경제성장기(195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에 동반된 도시에의 인구이동에 의해 지방에 “과소화”가 발생했다. 과소지역의 특징으로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또 이들 여러 조건의 결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불교사원 대부분은 단가제도(檀家制度)에 기초해 주로 지역에 사는 단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 장례, 제사 등의 의례집행 등을 행하는 한편, 절은 단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처럼 사원은 “지역에 사는 단가”를 주된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과소화에 의한 지역 인구의 감소는 불교사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발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토종 종합 연구소”의 “과소지역에서의 사원에 관한 연구반”에서는, 과소지역에 있는 정토종 사원의 현 상황, 또는 사원이 추진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①과소지역에 있는 정토종 사원에의 청취조사³(2008년부터 계속 중) ②과소지역의 정토종사원에대한 설문조사⁴(2012년 6월

³ 와카야마 현 아리다, 히다카, 노카미 지역 8개 절(2008년 11월), 지바 현 미나미보소 지역 8개 절(2009년 10월) 야마나시 현 야쓰시로, 쓰루 지역 6개 절(2010년 3월), 니가타 현 사도 시 5개 절(2010년 7월), 시마네 현 이와미 지역 12개 절(2010년 12월, 2011년 6월), 고치 현 무로토, 도사시미즈 지역 4개 절(2011년 12월),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 미나마타 지역 11개 절(2013년 3월), 홋카이도 마쓰마에, 에사시, 왓카나이, 레분, 루모이 지역 13개 절(2013년 7월)에 청취 조사를 실시하였다. 덧붙여, 조사 보고는 정토종 종합연구소 ‘교화연구’20-23에 게재.

⁴ 과소지역(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조치법 2조 1, 33조 1, 33조의 “구 지정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소지역의 정토종 사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크게나누어 경제적 문제, 사원의 향후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다.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사원의 경제상태의 악화 요인으로 생각되는 단가 인원수 감소의 문제, 역승(役僧) 기회의 감소 문제, 겸직의 문제, 단가의 거주지 확산화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사원의 향후에 관한 문제에서는, 사원의 후계자에 관한 문제와 향후에 사원을 “정주지사원(正住職寺院)으로 유지해 가고 싶은지”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과소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 지역 및 각 사원이 안고있는 문제와 심각 상태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건전한 사원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은 어느 주지도 대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확실히 10~20년 후에는 “사원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는 더욱 가시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에 이동(=거주지가 사원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한 주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47~49년생)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세대가 “보리사(菩提寺)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신도(檀信徒) 관계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후의 일본은 인구가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돼 2060년에는 인구 8674만 명, 고령화율 39.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 헤이세이(平成) 24년 1월 추계). 이 점에서 현재 과소지역의 사원에 발생한 문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장래에는 일본 전국의 사원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있는 정토종 사원(대무주지 사원은 제외)에 대해 실시(2012년 6월). “정주사원”판 (710개 절 대상. 회수 627, 회수율 88.3%), “겸무사원”판 (277개 절 대상. 회수 236, 회수율 85.1%) 각각을 실시. 배포는 해당 사원에 직접 우송, 회수는 해당 사원이 소속된 조→교구→정토종 총무국을 거쳐 회수.